



# 육식의 시대는 갔다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 미

식점에 가면 메뉴판에 고기는 무조건 1인분에 200그램이다.

살빼고 싶다면 60그램만 먹어라. 세계적인 근육질의 남자<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말을 들어보자. 그 같은 우람한 몸매도 체중당 1그램의 단백질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유는 단백질은 밤에 이루어지는 보수공사 - 주름살 상처 메꾸는데 머리털 근육등에 쓰이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몸에 쌓아두면 독이 된다. 그래서 바로 바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게 더 힘든 일이다.

## 내 입속의 고기는 남의 배고픔

지구촌의 12억은 비만으로 혁혁대고 또 다른 12억은 사막의 확산, 기상이변, 전쟁 등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매일 굶어 죽는 어린이는 무려 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 쪽에선 먹을게 없어 굶어 죽고 다른 쪽에선 배가 불러 고민인 것이다. 인간의 식량만 생산한다면 전세계 경지면적의 30%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경작지 대부분이 곡물 농사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돈 되는 커피, 차, 코코아, 설탕, 고무, 담배 등의 재배나 소고기를 얻기 위한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곡물 농사라 해도 동물들의 사료로 쓰이는 콩, 옥수수 생산이 대부분인지라 사람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다.

차라리 곡식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고 배고픔을 면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잘사는 사람들 입에 들어 갈 고기와 기호 식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곡물이 부족해진다는 얘인데... 허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 가축 똥에 섞는 물

어디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먼저 식수가 오염되었나 조사를 한다. 대부분 물이 장티푸스, 콜레라균등에 오염되어서 그물을 마신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이것이 <수인성 전염병>의 정체다. 즉 똥물을 마시고 전염병이 생겼다는 얘기가.

가축들이 생산(?)해 내는 꾸집한 똥들은 땅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우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쓰이고 그 물은 하천이나 호수로 들어가 다시 물을 오염을 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며 호수로 흘러들어 물을 썩게 만들 것이다. 그 물은 결국 고기 먹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 동물들의 복수

미국에서는 비좁은 우리의 소들을 일렬종대로 세워 하루종일 무릎 꿇어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이 한 방향만 보면서 차가운 금속판 위에 한평생을 서 있게 한다고 한다. 돼지도 몸을 꼼짝도 못하게 갇혀 있어서 난폭해지고 서로 꼬리를 물어뜯어 죽이는 정신 착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닭들도 비참한 방법으로 키워지고 있다.

동물은 이제 사람처럼 숨쉬는 짐승이 아니라 살코기를 생산해 내는 공장처럼 사육되고 있다. 영원히 인간의 손아귀에서 사육 당해야만 하는 동물들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동료들의 시체를 갈아서 먹여버린 인간에게 미쳐 가는 몸을 던져 주고 끔찍한 병을 옮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살코기 대량생산에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사육방식이 중단되지 않는 한 광우병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남의 고기로 내 배를 채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산다. PPFK